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후 카메라를 잡고 있는 이 동문을 만나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행복기숙사와 세화원의 소방안전관리사항을 검토해봤다.

대학주보



'천원의 아침밥' 든든해진 등굣길

지난 13일부터 양 캠퍼스에서 '천원의 아침밥' 행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4,500원 정도였던 학식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학생회관 일부 시설 리모델링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서울】학생회관 일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리모델링이 진행된 곳은 ▲심리상담센터 및 상담실 ▲남학생 휴게실 ▲여학생 휴게실 ▲두런두런 세미나실이다.

이번 리모델링은 제55대 총학생회(총학)의 공약 중 하나인 '학생회관 세미나실 리모델링'을 이행한 사업이다. 기존 학생회관 세미나실은 문고리가 훼손돼 있거나, 집기 비품에 2000년대 초반의 교비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등 시설과 비품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면 수업이 정상화되자 총학은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측에 리모델링을 요청했다. 이에 학생지원센터는 국고 사업인 교육혁신 예산을 배정받아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 이전은 지난 12월부터 시작돼 3월 13일 완료됐다. 가장 먼저 리모델링이 완료된 심리상담센터 사무실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나머지 공간 개방 시점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논의 중에 있다. 학생지원센터 이진섭 행정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센터의 상담 공간이 확충돼 상담 대기가 짧아지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총학 이재백(관광학 2020) 회장은 "대면 학기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다수의 학생이 이용하는 학생회관 시설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추후 본부와 협의해 다른 공간도 개선할 수 있다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휴게실 및 세미나실은 공용 공간이기에 시설 사용 시 주변 공간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퇴실 시 확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불법주차 기승... "주차장 확충은 장기 과제"

박희원 기자 mxhxfxy@khu.ac.kr

【서울】대면 학기가 재개되며 차량 출입이 늘어나자 교내 불법 주차 문제도 재점화되고 있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스티커 부착을 하거나 정기권을 박탈하는 등의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캠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입출차가 불가한 차량 요일제와 요일제 3회 위반 시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이 불가하게 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차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을 문자로 발송하고, 이후에도 미조치 시 주차위반 스티커

를 부착하고 있다. 불법주차 스티커 3회 누적 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해, 불법 주차의 경우 학기당 9회 적발 시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이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하거나 주차행위를 방해한 것이 적발됐을 때는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해 과태료 부과를 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법 주차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 원인은 공간 부족이다. 서울캠은 국제캠퍼스(국제캠)에 비해 부지가 좁기 때문에 주차 공간 역시 협소하다. 서울캠 주차 공간은 ▲스페이스 21 주차장 ▲오비스홀 지하 주차장 ▲노천극장 주차장 ▲푸른솔문화관 지하 주차장 ▲후문 주차장에 마련돼 있다. 이에 장애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해서 서

울캠에는 총 1,05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총무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일 주차량은 기간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는 하나 월평균 48,546대(일평균 1,618대)에 달한다.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불법주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무관리처 총무팀 역시 "공간의 한계로 인해 주차 공간 자체가 협소한데 차량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중주차나 갓길 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총무팀과 주차관리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인근 공영 주차장인 회기동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 대상 스티커 부착을 강화해 불법주차 단속에 힘쓰고 있다.

총무팀은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에티켓 함양과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원활하고 안전한 캠퍼스 교통환경을 위해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캠은 교직원과 일부 대학원생들, 임대매장, 출입업체, 병설기관만을 대상으로 정기권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부생은 각 부서 내부 결재 후 할인권을 구매해 주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공과 관련해 무거운 도구 및 악기 운반이 필요한 학부생에 한해서는 단과대학 행정실 확인 후 정기권을 발급하고 있다.

총무관리처는 "시일이 필요해 (주차장) 확충 계획은 없다"면서도 "부지 선정 등 수반되는 논의가 많은 장기적인 과제이기에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전했다.